

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 이야기

# 장학월보

Vol 271 2015 / 9



# 사랑하기에

글 창원토월고등학교 교사 성정수

소슬바람 불어와  
움추리드는 저녁

연한 밤색 스카프를  
아내 목에 두르니

단풍이  
살며시 앉는다  
뽀얀 얼굴 위로

어느새 머리위로  
서리가 내려도

국화주 한 잔과  
마주치는 눈빛에

가을이  
내 숨결같이  
시나브로  
밀려온다.



## Contents



### 04 권두언

이 가을에 그려 보는 학교 집 한 채 / 교육감

### 06 생생현장

### 08 교육칼럼

지금, 인성교육의 방향을 고민할 때다 / 이맹우

### 09 특별기획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 김두규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 / 유정희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 / 이종향

### 20 교육정보 / 경남교육! 이것이 궁금합니다.

2016. 행복학교 및 행복맞이학교 공모 선정 계획

유예 처리 후 정원의 학적관리 대상기준인 3월의 뜻과 유급기준은?

전통은 있어도 역사가 없는 학교?

- 기록물관리의 의무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종합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부서(기관)별 9월 주요 행사 계획

### 28 배움중심수업

배움과 성장이 있는 수업 이야기 / 송주희

### 30 배움이 즐거운 학교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통한 21세기형 인재 양성 / 김정자

### 32 동아리 탐방

행복한 학습공동체 / 남은희

### 34 이달의 교사

꿈을 읽는 교사는 늙지 않는다! / 이유진

### 36 책 읽는 교사의 서재

수석교사 양경윤의 서재는 나눔과 함께이다. / 양경윤

### 38 삶의 향기

강촌 학교의 독서교육기 / 김명연

### 39 지상갤러리

아~신기해! / 전광희



표지사진 "정보공나르미"  
정호찬(김해 삼방초등학교 교사)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10월호 모집 기간 : 2015년 9월 19일까지

• 모집내용 : 배움이 즐거운 학교, 배움 중심 수업, 삶의 향기(시, 수필, 독후감 등), 등 분량 : A4 1~2매 내외

• 원고보내는 곳 :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 내려받기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초등교육과 ▶ 부서사업 ▶ 보고서 / 간행물

2015년 9월 1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총괄 | 초등교육과 과장 최훈 기획 |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오영선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김대현

편집위원 | 박영선, 박선정, 배인숙, 김요섭, 정호찬 인쇄 | 문성인쇄사 (055)282-9922



## 이 가을에 그려 보는 학교 집 한 채

여름방학은 보람 있게 잘 보내셨는지요? 연수, 독서, 휴식 등 저마다 짧은 휴가를 즐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는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겠지요. 아껴서 모은 돈으로 먼 나라를 탐방하고 온 분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낯선 자연 환경도 만나고, 크고 작은 도회지도 둘러보았겠지요. 아름다운 중세 건축들이 즐비한 유서 깊은 도시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는 웅장한 성당, 박물관,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고성이며, 무너져 가면서도 위용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로마의 건축들도 만났겠지요. 그리고 시대를 훌쩍 건너 새롭게 지어진 현대 건축의 매혹적인 자태에 넋을 잃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림으로만 공부했던 로마네스크·고딕·바로크·로코코와 같은 건축 양식, 도리아·이오니아·코린트 등 기둥의 양식도 눈으로 보면서 그 다양한 양식이 나타내는 다채로운 건축 미학에 젖었고, 그래서 여행길이 격조 높고 아름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 건축은 근대 이전의 건축과는 다른 미감을 자아냅니다. 우리가 한 때 마천루(摩天樓, skyscraper)라 불렀듯이 고층이 그 특징입니다. 콘크리트가 석재를 대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세계적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로부터 확산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는 생활의 기능을 중시하면서 외벽에 조소성을 강화함으로써 기능주의와 표현주의를 함께 구현했다는 평가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은 물론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도시 설계를 담당하였고, 콘크리트 건물이 현대 문명의 상징이 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가들이 경탄해 마지않는 르 코르뷔지에가 외면을 받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인도에 그 많은 집을 지어 주었지만, 사람들은 정작 그 집에 깃들이지 않고 길거리로 나와 차라리 노숙을 즐긴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크게 지을 수 있고, 내부 공간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람에게 거부감을 주는 듯합니다. 낡은 석조 건물 앞에서 탄성을 지르고 한 동안 그 아름다움에 젖어 있는 사람은 많지만, 세련된

빌딩 앞에서 경탄은 하지만 미감에 빠져 머무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에서도 정서적 친소성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학교 건물입니다. 도시에서도 공간적으로 가장 넓은 것이 학교 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육면체의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똑같은 교실들이 나란히 배치된 평면 구도가 층층이 포개져 있는, 단순하기 이를 데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은 높겠지만, 미적이지도 않고 서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집을 사랑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며칠 전, 이른바 기숙형 거점 중학교로 첫 문을 연 미리벌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하룻밤을 보냈는데, 잘 지어진 건물과 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넉넉한 학습 공간,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 외관, 잔디 운동장과 작은 정원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주는 경직된 인상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우리 학교들의 환경이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교육부의 사업이라 이런 학교가 지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교육청의 부족한 예산이 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공약으로 학교 건물과 환경의 ‘감성화’를 내걸었습니다. 주장이 너무 생소하여 그랬는지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자문해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설계에 디자인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나머지 학교들의 사정은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지붕만 만들어 올려도 건물의 외양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고, 배경을 이룬 산과 들에 아늑히 안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 보편적 인식과 교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생각합니다. 학교 환경을 감성화하는 데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야 예산도 마련되고, 환경의 미학을 고려하는 문화가 든든히 자리잡게 되는 것입니다. 교내에 정원을 만들고, 작은 산책길도 마련해 사색과 정서적 교감의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 스쿨이란 자연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학교이고, 비인간화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학교이며, 미감과 감성을 길러 주는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온돌 교실도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집과 학교의 정서적 거리를 좁혀 아늑하고 행복한 심정에서 배움을 쌓아 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돈 타령만 하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돈 타령을 제대로 하면 시설의 감성화는 경제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각과 창의성을 기른 그 아이들에 나중에 더 큰 부를 이루어 내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 테니까요. 그래서 감성화된 건물은 그 자체로 교육입니다.

9월의 싱그러운 바람이 교정에 불어옵니다. 비록 딱딱하고 네모진 건물 안이지만, 방학 동안 탐방했던 무량수전이며 켈른 성당, 블루 모스크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겠지요. 선생님들의 뜻으로 그나마 미감과 감성이 자라나고 있겠지요. 교실 밖 트랙에서 구절초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듯이!

감성 건축을 스케치해 보며

교육감 박 중 훈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 생생현장



- 1 공문서 모니터단 역량강화 연수
- 2 ICT활용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 설명회
- 3 2015. 초등스포츠강사 직무연수
- 4 무한상상의 날개! "양산수학체험센터" 개관

- 5 자유학기제 교원 역량강화 워크숍 (창녕교육지원청)
- 6 삼성중공업(주) 급식비 지원 (거제교육지원청)
- 7 어린이 통학버스 홍보 캠페인 실시 (고성교육지원청)
- 8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행복수업 레시피 연수 (김해교육지원청)
- 9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문화 탐방 (의령교육지원청)
- 10 특수교육지원센터 전환대상자 여름방학 프로그램 (진주교육지원청)
- 11 칠석 맞이 세시풍속 체험활동 (김해유아체험교육원)



## 지금, 인성교육의 방향을 고민할 때다!



글 경상남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맹우

올해 7월 21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교사 등 인성교육 시행의 각 주체들은 구체적 계획과 사업 및 예산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일찍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기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어져 왔다. 이제 법으로 제정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지금의 인성교육의 현실이 안타깝고 우려되지만 제도적인 규정을 동원시켜서까지 가르쳐야 하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과거 삼대가 함께 모여 살았던 대가족 사회에서는 효와 공경, 질서와 배려 등 인성의 덕목들을 생활 속에서 터득할 수 있었고, 아이들 곁에는 늘 울타리가 되는 가족이 함께 있었다. 공간이 비어 있어도 지금처럼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 간 위화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으며 가난했지만 춥지 않은 세상에서 인성은 습관으로 내면화 되어 어울려 살아갈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 위계와 함께 질서 또한 순리에 역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의 변화가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오늘날, 어른이 생각하는 ‘착한 아이’, ‘모범생’으로서의 자질을 요구하는 지금의 인성교육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들의 문화와는 괴리되는 당혹감과 함께 오히려 저항감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결코 기우는 아닐 것이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문화의 차이, 세대 간 인식과 사고의 간격까지도 고려한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것이다.

위대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모든 역사를 “성공은 큰 실패를 부른다.”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응전이 도전에 상응할 때 그 응전은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새로운 도전의 해결에 과거에 성공했던 응전방법은 더 이상 효과가 없어 크게 실패한다는 뜻이다. 인성교육에 대한 절박함은 경제와 문명의 발전이라는 성공이 부른 큰 실패로 우리 사회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다. 더 늦기 전에 ‘인성’ 자체를 두고 긴 시간에 걸쳐 내내하며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성교육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인성교육의 방향에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방법의 철학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면서 시대와 사회변화, 그 속에서 날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맞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보아야 할 때이다.

# 특별기획

## 개인정보보호

IT 강국으로서의 위상확보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을 근절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과 중요성 및 단위학교의 사례에 대해 살펴봅니다.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글 부산대학교 연구교수 김두규

개인정보보호는 사생활의 비밀 보장 및 행복추구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가치로서 특히,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주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쇼핑 이용자 2,604만명, 인터넷뱅킹 이용자 1,857만명 ('13 정보화통계집) 시대의 IT기반 경제구조 하에서 개인정보보호는 경제 질서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은 해킹, 내부유출, 위탁업체 관리 소홀 등으로 유출정보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신용정보 유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

### < 주요 사고 사례 원인 및 피해규모 >

시기	발생기업	발생원인	피해규모	유출정보	제재조치 등
'08. 2	옥션	해킹	1,860만명	주민번호, 이메일 등	-
'08. 4	하나로텔레콤	불법제공	600만명	주민번호, 이메일 등	40일 영업정지, 과징금 1억5천만 등
'10. 3	신세계물 등25개 업체	해킹	2,000만명	주민번호, ID, 비밀번호 등	업체별 유출수준에 따라 과태료부과
'11. 7	SK컴즈	해킹	3,500만명	암호화된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등	-
'11. 8	삼성카드	내부유출	80만명	주민번호 앞자리 2개 등	기관주의 및 유출직원 면직
'12. 7	KT	해킹	870만건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요금제 등	과징금 7억5천만, 시정조치 명령
'14. 1	카드3사(KB·롯데·NH카드)	위탁업체유출	8,700만건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결제계좌 등	3개월 영업정지 및 각 사에 과태료 600만원부과
'14. 3	KT	해킹	1,170만건	주민번호, 유심카드번호 등	과징금 7천만, 과태료 1천5백만, 시정명령

현재 국내에서는 대출·통신·텔레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금전적 이득을 위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화번호 정보는 건당 10원 ~ 50원, 대출기록이 포함된 개인정보는 건당 5천원~2만원에 판매('14.01.08, 서울신문)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인터넷 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검색건수가 2013년 18,994건, 2014년 6월 20,192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불법유통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통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주민번호 해외노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번호 해외노출 국가순위는 총 6,572건 중 중국이 5,612건(85.5%), 미국이 660건(10.0%), 일본이 24건(0.4%)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이 급증하고 있다. 2013년 12월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11년~2013년간 사이버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누적 건수는 약 5만 4천건('11년 8,244건, '12년 7,891건, '13년 37,744건), 피해금액은 총 2천 4백억원('11년 1,019억원, '12년 601억원, '13년 775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보이스피싱 피해 외에 스미싱(Smishing) 등 신종기법을 악용한 소액결제 사기 등으로 인한 신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건수)은 2011년 1,019억원(8,244건), 2012년 595억원(5,709건), 2013년 553억원(4,765건)이었으며, 스미싱 피해액(건수)은 2012년 6억원(2,182건), 2013년 57억원(29,575건)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발전된 IT 인프라와 함께 주민번호 중심의 개인식별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큰 상황이다. 2012년 인터넷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규모는 5년간 37억불, GDP 0.4% 수준에 달하는 상황이다. 교육현장에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고유번호(13자리)가 부여되고 한번 부여되면 변경이 제한되며, 공공·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012년 8월부터는 온라인상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전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는 경향이 있다. 2013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88.1%, 민간사업자의 61.5%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75%는 과도한 수집이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법령도 866개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사실이다. 주민번호는 여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연결하는 핵심 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출시 명의도용 등 피해우려가 큰 상황이다. 2012년 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관련 전체 민원(166,801건) 중 83.8%(139,724건)가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정부에서는 주민번호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수단으로서 I-PIN을 오프라인에서도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1단계 온라인만 적용되는 I-PIN 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2015년부터 2단계 민간 I-PIN 발급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사이렌24), 코리아크레딧뷰로(KCB), NICE평가정보 등)에서는 주민번호를 보관하지 않도록 개편하고 있으며, 주민번호 이외에 다양한 개인 식별 수단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2014년 2월~6월말까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단(단장 : 교육부차관)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관리체계, 보안기술, 인프라 전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① 위탁업체가 연이어 계약될 경우 매년 해야 하는 위탁업체 교육 미실시 ② PC 유지보수 등 외부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미포함 ③ 업무 위탁 계약 시 문서에 의한 계약 처리 미흡 등이었다.

둘째,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① 매년 대다수의 초·중등학교에서 관행적으로 각종 조사서식을 이용하여 주거현황, 부모 직업 등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 ②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개인정보 수집양식에 동의 절차, 필수고지 항목누락, 제3자 제공에 따른 별도 동의여부 미 준수 등이었다.

셋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유형은 ① 시스템 접속기록이 대부분 기본사항(ID·접속시간 등)만 관리되고 유출 확인에 필요한 업무수행내역(열람·출력 등)은 미 관리 ② 인사이동 시 시스템 접근권한을 즉시 변경하지 않고 상당기간 유지 ③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내부 저장 시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이었다.

넷째, 개인정보 파기 위반 유형은 ① 학생·학부모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중이) 등 파기관리 소홀 ② 분쟁 대비 등을 이유로 보존기간을 장기로 설정 및 관행적으로 파기 지연 등이었다.

다섯째, 개인정보 취급자 감독과 관련한 위반 사항은 취급자·수탁자, 시스템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정기 또는 수시 실태조사 및 점검 미실시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담당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C의 업무망/인터넷 망 분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나 관련예산이 거의 미 반영되어 있었고, SW의 경우에도 적기에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나 관련 예산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담당 전문 인력의 확보와 업무 처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사회 전 분야에 뿌리 내려 사회 전반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다시금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현황을 상시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호 조치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향후 개인정보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빅 데이터 분석 등 그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그에 비례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또한 늘어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국민들이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는 기관은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일상의 업무 속에서 접하는 개인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

글 경상남도교육청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 I. 추진배경

- ◆ 교육(행정)기관은 다량의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장기간의 보유 및 교육기관 간 빈번한 학생정보 유통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대두
- ◆ 개인정보 담당자·취급자의 의식 및 역량 부족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발생

## II. 추진목표

- ◆ 교육(행정)기관 주요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강화 및 보안서버 확충 등 개인정보보호 유출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학생·학부모 불안감 해소
- ◆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보장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 환경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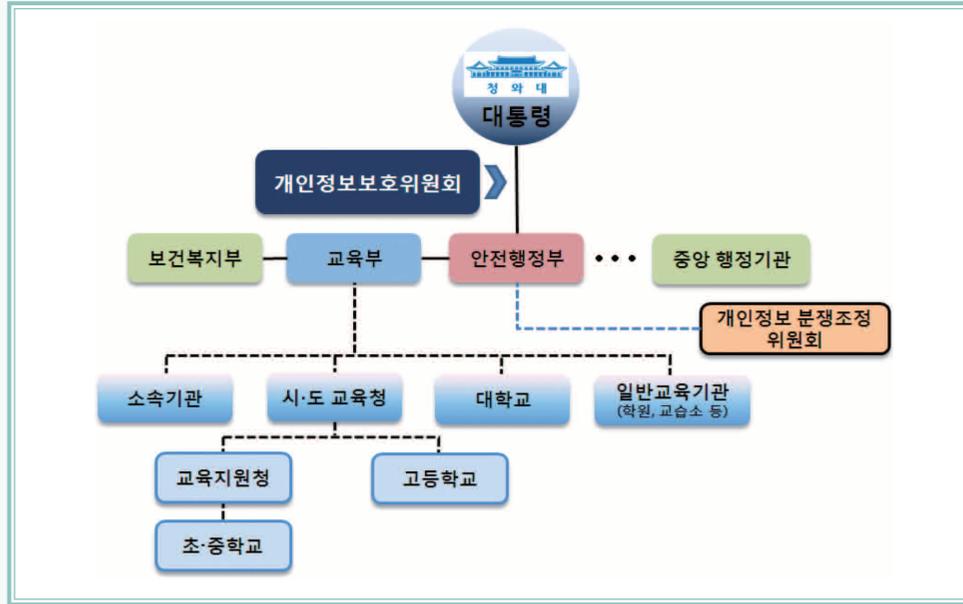
## III. 추진전략

- ◆ 본청 및 교육지원청과 종합적·유기적 협력지원(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 ◆ 단위 기관 간 개인정보의 유통·제공이 빈번(연계)함에 따른 유통 구간 암호화, NEIS 등 총괄기관을 활용한 개인정보 제공
- ◆ 단위학교의 모든 구성원(교사, 직원)이 개인정보 취급자인 교육기관 환경에 맞추어 일 반적 개인정보 인식제고 활동 강화

## IV. 추진일정

사업유형	개인정보보호 사업명	2015년도				관련기관
		1/4	2/4	3/4	4/4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	일반법 중심의 법체계 정비					본청
	보호기준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전 기관(학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통제 체계 강화					전 기관(학교)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전 기관(학교)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 기관(학교)

## V. 추진체계



## VI. 추진내용

###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 ▶ 분야별 자치법규, 규칙 등 재정비
  - 자치 법규, 규칙 등 검토 후,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근거 정비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차단)
    -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개인정보처리 관련 소관법령
- ▶ 사회적 피로도 경감을 위한 보호기준 합리화
  - 교육기관별 특성 및 개인정보처리 규모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마련·추진
  - 기관특성을 반영한 표준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마련·시행
    - 단위 학교·기관별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조직, 제도, 운영방안 등 표준 내부관리 계획 작성·배포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업무 사례집 수정·보완
    - 법령, 제도 및 업무 환경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및 업무처리 방안 마련
  -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학교) 간 역할분담,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 교육지원청 : 소속 기관(학교)에 대한 보호활동 지원
    - 소속 기관(학교) :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시행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매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의무이수 권장 및 교육과정 확대 추진
  - 교육부 정보보호 교육센터 및 교육연수원 등을 통하여 교육과목 확대
  - 사례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포럼 참여 독려
-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의식 제고의 기회를 마련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 적극 참여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 ▶ 선제적·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 학원 및 교습소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및 자율규제 지원
    - 학원·교습소 연합회의 정기 워크숍, 회의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해당 부서 협조 요청)
  - 개인정보보호 실천의식 제고 및 생활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PC 화면보호기 제작·보급
- ▶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통제체계 강화
  -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노출 사전예방 체계 강화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강화
      - ※ 다수·재노출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 보안서버 보급을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점검단 확대·상시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및 법령 미 준수 기관에 대한 현장 컨설팅·교육 지원
    - 정보보안 감사와 병행하여 현장점검 실시 및 개선사항 도출
    - 유공자 표창 수여 예정(정보보안 감사 결과 우수기관 선정)
  -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웹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사항 점검
  - 업무용 PC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노출 감시 및 보안 강화
    - 「PC 개인정보관리시스템」운영 활성화를 통한 업무용 PC 개인정보파일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및 정보보안 감사 시 업무용 PC의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조치 이행 사항 점검

- ▶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교육부, 시·도 간 역할분담을 통해 교육체계 확대 및 상시학습 체계 구축
    - 교육연수원
      - 신규 교직원 및 교장/교감 자격 연수 시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과정 포함
      -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하여 교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유출방지 마인드 제고
      - 개인정보보호 원격 연수과정의 확대 운영을 통해 상시학습 지원
    -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고려대, 충남대, 부산대, 경상대)
      -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 시·도교육청 대상의 개인정보보호 강사 인력 양성 및 운영
        - ※ 양성된 강사를 활용하여 전 기관(학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이용을 통해 교육품질 향상
    - 인력, 예산 등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지원체계가 열악한 기관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지원
  - ▶ 침해예방 및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정보 제공 체계 구축
      -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안내, 주요 업무 사례 및 이슈사항(위험정보, 사고사례 등) 공유 체계 구축
  - ◆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강화
      - 개인정보 의식 강화를 위한 PC 화면 보호기 및 홍보용 리플릿 개발·배포
    -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직장교육 및 집합교육)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육 실시 및 개인정보 수탁자 및 취급자 교육 강화

## Ⅶ. 기대효과

- ◆ 교육(행정)기관 주요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강화 및 보안서버 확충 등 개인정보보호 노출 예방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활동 강화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관리의 신뢰성 확보
- ◆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제고 및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개인정보 관리 환경 구축



#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

글 거제 중곡초등학교 교장 이종향

## 1. 시작하며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모든 경제주체의 활동이 개인정보를 매개로 유지 및 운영되면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과 유통이 급증되고 그로 인해 컴퓨터 범죄 악용 및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오남용의 위험성이 증대되어 개인은 물론 나아가 국가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교에서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개인정보보호의 노력에 있어 1년 365일 하루라도 게을리 할 순 없겠지만 무엇보다 학기가 시작되는 3월, 4월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가. 학교 홈페이지 관리

최우선 점검대상은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이 가장 큰 학교홈페이지이다. 학기 초 학교홈페이지에 각종 업무별 계획 자료, 학급자료들을 올리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올리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수시점검과 함께 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 보면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 종합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이 일치하는지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건수를 파악하여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주체가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와 수집 현황, 활용 현황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안내

대부분 학교에서 3월 학생들과의 첫 만남에 담임 교사가 나누어 주는 가정통신문이 ‘가정 환경조사서’일 것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 환경조사서 뿐 아니라 수학여행, 현장학습, 졸업앨범제작, 홍보물, 화상정보 수집 이용 동의 등 학교에서 수집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은 무척 많다.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할 때마다 동의서를 받는 것은 가정과 학교 모두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일이다. 개인정보보호업

무 처리 사례집(2014.1.)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경우라면 일괄동의를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본교에서는 학기 초에 1년 동안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들을 사안별로 각각 명시하여 일괄 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동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수집한 개인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다. 교직원 연수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학교 교직원 연수시간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의미와 중요성, 보호의 방법들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무심코 지나친 일이 개인정보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 가령 학교 메신저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메일을 통한 악성 스파이웨어 침입,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수집, 작년 학생들 개인정보 삭제 등을 안내함으로써 모든 교직원이 정보보안에 힘쓸 수 있도록 하였다.

#### 라.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정보담당자 연수에서 ‘내pc지키미’와 ‘Privacy-i’ 프로그램에 뜨는 문제점만 잘 조치한다면 컴퓨터 보안 문제는 크게 걱정할 것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학교에서도 매 월 셋째 주 수요일이 되면 학교 전 교직원 컴퓨터에 두 프로그램 모두 실행하여 보안 점검에 이상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모든 교직원이 컴퓨터 관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 마. 그 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사용 기한이 지난 컴퓨터들은 폐기절차를 거쳐 폐기하고 있으며 특히 하드 디스크는 따로 분리하여 불용처리하고 있다. 또한 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 서약서와 함께 보안교육을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목적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목적 달성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 3. 마무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교에서만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정보보안 지침서를 숙지하고 지침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 보안 관리에 방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교직원 모두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 같이 노력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경남교육! 이것이 궁금합니다.

- ▶ 2016. 행복학교 및 행복맞이학교 공모 선정 계획
- ▶ 유예 처리 후 정원외 학적관리 대상기준인  
3월의 뜻과 유급 기준은?
- ▶ 전통은 있어도 역사가 없는 학교?  
- 기록물관리의 의무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 ▶ 종합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 2016. 행복학교 및 행복맞이학교 공모 선정 계획

우리 도에서는 2015년도에 이어 「2016. 행복학교 및 행복맞이학교」를 공모합니다.  
미래형 학교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바랍니다.

### 1. 행복학교 공모의 추진 근거

- 가. 경남교육 역점과제(경남형 혁신학교 운영)
- 나. 행복학교 운영 기본 계획(학교혁신과 - 4478 : 2014.10.14.)
- 다. 2015. 행복학교 추진 계획(학교혁신과 - 3189 : 2015.2.25.)

### 2.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의 추진 목적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1.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과 확산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1.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의 조화로운 추진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2.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및 학교혁신의 필요성 충족	2. 행복학교 준비 단계로서 단위 학교의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단계적, 부분적 행복학교 운영
3.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과 협력적 교육 문화 형성	3. 학교, 학년(군), 교원 동아리 등 참여 단위의 다양화를 통한 행복맞이학교 운영 과제 실천 및 행복학교 확대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4.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가꾸어 가는 경남교육 구현	

### 3.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의 추진 방향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1.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한 공모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1. 행복맞이학교 공모 선정은 도교육청 <학교형 선정>과 교육지원청<학년(군), 교원 동아리형>으로 이원화하여 추진
2. 심사 내용은 1차 계획서 심사와 2차 현장실사 및 면담으로 함	2. 행복맞이학교 최대 2년 운영(기존 운영학교 재응모 가능 - 유형 변경 가능)
3. 4월 공모계획 발표를 통하여 추진과정에 대한 선정기준 확보	

### 4.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의 세부 추진 계획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학교혁신과 - 6465(2015.4.6.)호 '2016. 행복학교 공모계획' 참조	행복학교 선정 이후 세부계획 포함 공문 안내 예정

[담당자 연락처 : 278-1763]

## 유예 처리 후 정원의 학적관리 대상기준인 3월의 뜻과 유급 기준은?

무단으로 장기결석을 하는 학생의 경우는 결석처리를 3월간 하고 유예와 동시에 정원의 학적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3월의 정확한 개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급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 1. 유예처리 후 정원의 학적관리를 하는 대상자는?

불법유학,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연속하여 무단결석을 3월 이상 하게 될 때, 3월이 되는 날에 유예 처리 후 정원으로 학적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정유학 사유로 인하여 출국한 학생의 경우는 유예처리하지 않고 출국일을 기준으로 바로 면제 처리하여야 합니다.

### 2. 유예처리 후 정원의 학적관리를 하기 위한 무단결석 3월이란?

이때 3월의 의미는 단순히 월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3월을 계산 할 때는 방학(단기방학 포함)기간은 제외하여야 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포함하여야 합니다.

### 3. 학교에는 다니고 있으나 학년말 진급을 하지 못하는 유급 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유급대상자는 잦은 결석과 출석을 반복한 결과, 학년말에 출석일수를 계산하였을 때 출석해야할 일수(수업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하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급대상자는 정원의 관리대상자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학년말에 상급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는 유급대상자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단기방학)을 제외한 순수히 출석해야할 일수(수업일수)를 기준으로 1/3 이상을 결석하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정원의 학적관리를 위한 3월을 계산하는 것과 유급대상자가 되는 출석일수의 1/3을 계산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268-1115]

## 전통은 있어도 역사가 없는 학교? - 기록물관리의 의무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 접수한 모든 기록물을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하여야합니다. 기록물관리의 의무와 원칙, 관리체계를 알려드립니다.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록물 정의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 2. 기록물관리의 원칙

#### 가. 공무원의 의무

- 모든 공무원은 기록물을 보호, 관리할 의무를 가짐
- 공공기관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나. 기록의 가치 : 1차적-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가치, 2차적-역사적, 증거적, 정보적 가치

다. 기록물관리의 원칙: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

- ⇒ 유의사항 : 비전자문서는 스캔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결재를 받았다하더라도 진본성의 원칙에 따라 비전자문서가 원본입니다. 비전자문서 원본은 보존대상이며, 업무담당자의 직접 폐기는 불가합니다.

#### 라.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

-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유일한 증거 및 정보자원
-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 및 활용은 행정기관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요소

### 3. 기록물관리의 시작 -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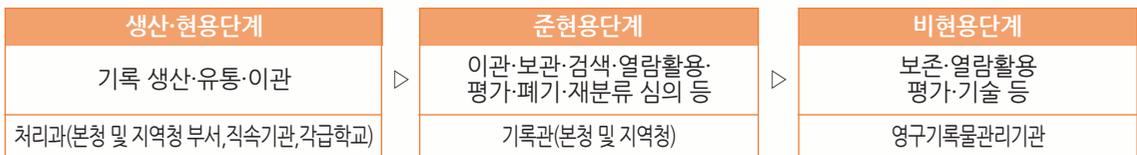
가. 등록방법 :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기록물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나. 등록원칙

- 전자문서 붙임 파일 첨부 시 암호화, 압축파일 금지, 실제 파일이 아닌 연결정보(링크) 파일 첨부 금지
- 첨부물의 분리등록: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 및 다른매체인 경우 분리등록

### 4. 기록물 관리단계

#### 가. 관리주체와 역할



#### 나. 기록물관리체계 흐름도



- ✓ 신전자문서시스템(2008.4~2010.12) 및 업무관리시스템의 전자문서 이관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 향후 이관이 완료되면 전자문서는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 ✓ 기록관리시스템은 2016년 이후 각급기관에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담당자 연락처 : 268-1331]

## 종합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 도에서는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기능·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교육비리 및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을 통한 불법·비위행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9월호에서도 종합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 1. 학생 출·결석 관리 소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8조(출결상황) 제2항에 따르면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지 제8호의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질병·무단·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고 되어 있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을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에서는 질병으로 결석한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처리하면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받지 않고 질병결석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14~2015)에 따르면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연수로 인한 결석, 학업중단 숙려 기간 동안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에서는 해외어학연수 등으로 결석한 학생들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결석’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 2. 개인정보 관련 문서 소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2~2013년도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교육재정과-14124, 2012. 6. 12.)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관련자만 볼 수 있도록 결재정보 메뉴에서 반드시 비공개(6호) 및 직원열람제한(보안결재)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생산 및 접수하면서 결재정보 창에 직원열람제한(보안결재) 처리를 하지 않아 해당문서가 관련자뿐

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이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3. 생활기록부 정정 업무 소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82호)」제19조(자료의 정정) 제①항~제②항에 따르면,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2012.6.29. 이후 인적사항은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에서는 2013학년도 6학년 1반 ○○○ 등 총 100명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 처리한 사실이 있다(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학교장 결재를 득했음). 또한 교장 ○○○, 교감 ○○○는 2013학년도 6학년 각 반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 하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정 처리하였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4. 교원 휴가업무 잘못 처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병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같은 규정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의하면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교육부 예규 제13호, 2014.4.29.)에 따르면,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교사 ○○○은 2014. 4. 14.(월)부터 2014. 5. 9.(금)까지 ‘초기 임신 및 절박유산’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토·공휴일 제외, 18일)를 하였고, 2014. 5. 12.(월)부터 2014. 6. 5.(목)까지 ‘임신 9주 2일 및 절박유산’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토·공휴일 제외, 19일)를 하였다. 그리고 2014. 6. 9.(월)부터 2014. 6. 23.(월)까지 ‘상세불명의 초기 임신중 출혈’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토·공휴일 제외, 11일)를 하였다. 이는 2014. 5. 10.~2014. 5. 11.이 토요일 및 공휴일이고, 2014. 6. 6. ~2014. 6. 8.이 공휴일(현충일, 일요일) 및 토요일임을 감안하면 동일한 질병으로 연속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를 실시한 것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하며, 이 경우 총 71일의 병가일수가 된다. 또한, 2014년 2월 5일, 3월 9일, 4월 7일, 4월 8일에는 병조퇴 및 병외출을 하였고, 교사 ○○○의 2014년 총 병가일수는 72일이 되며, 이로써 12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시행한 잘못이 있고(2014년 연가 22일 사용),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이므로 2014년 6월 급여 763,200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다(결근일 12일중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의 토·일요일 제외한 8일치 급여 과다 수령). 교장 ○○○, 교감 ○○○은 교사 ○○○이 병가일수를 연 60일을 초과하여 신청함에도 철저한 감독 없이 이를 허가한 사실이 있다.

[담당자 연락처 : 268-1077]

## 부서(기관)별 9월 주요 행사 계획

순	일시(시기)	행사명	장소	대상	참가인원	주요내용	주관부서(기관)명	연락처
1	7.1.(수)~9.20.(일)	2015.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경남교육청 소속 23개 공공도서관	초,중,고, 일반	40,000명 이상	• 2015. 경남독서한마당 선정 도서를 읽고 독서 감상문, 독서 감상화, 독서 신문, 독서 만화 응모	창원도서관	278-2832
2	9월	학교도서관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창원관내 학교 도서관	초,중,고,	31,942명	• 북적북적 책 놀이 등 5개 프로그램 • 원화전시, 팝업북 등 11개 전시프로그램	창원도서관	278-2850
3	9월	원화 및 사진전시	마산도서관 갤러리 푸르미르	전체 이용자	200명	• '쿠키 한입의 행복수업' 원화 전시 • 손안에서(愛書) 독서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마산도서관	240-4571
4	9월	[테마전시] 어린이를 위한 이럴뎌 이런 책 도서 전시 외	김해도서관	도서관 이용자	3000명	• 나는 가치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관련 선정도서 서평 전시 등	김해도서관	320-5563
5	9월	갤러리 전시	김해도서관	지역주민	3200명	• 제10회 김해여성작가회 정기전-꿈, 희망, 그리고 사랑 • 수채화 국제전 • 사진작가 정희원 개인전-정희원 감성속으로	김해도서관	320-5563
6	9월~12월	평생학습프로그램 (38개 프로그램)	강좌실 1~6	일반성인, 유아6~7세, 초등생, 가족	860명	• 그림책 깊이읽기, 내 아이를 위한 역사책읽기, • 세계사 길라잡이, 신문활용교육과 논술 등	창원도서관	278-2825
7	9. 1.(화)~12.4.(금)	2015. 다문화교육 현장지원 프로그램 운영(2기)	신청유치원	신청유치원	신청유치원 150학급	• 다문화교육 현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남유아교육원	237-8083
8	9.2.~9.16. (매주수요일) 19:00~21:00	한국의 사상가에게 길을 묻다	마산도서관 소회의실	지역주민	20명	• 보조국사 지눌, 실학자 정약용의 사상	마산도서관 종합자료실	240-4550
9	9.4.(금)~10.11.(일)	제13회 시와 그림이 있는 시화공모전	마산도서관	창원관내 초,중,고, 일반	200명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여 공모	마산도서관 종합자료실	240-4560
10	9.5.(토), 9.12.(토)	2015. 다문화학생 이중언어말하기 전국 대회 준비 캠프 운영	문산중학교	학생	12명	• 다문화학생 이중언어말하기 원고 수정, 모국어 발음 교정 및 발표 태도 컨설팅	학교혁신과	268-1516

순	일시(시기)	행사명	장소	대상	참가인원	주요내용	주관부서(기관)명	연락처
11	9.5.(토), 9.19.(토)	토요 과학유치원	양산 신양초병설 유치원, 거제한아름유치원	유치원 학부모 및 유아	480명	•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 체험 활동	경남 유아교육원	237-8084
12	9.7.(월) ~9.9.(수)	2015년 경상남도교 육청 고등학생 스포 츠교류단 일본 아마구치현 방문	일본 아마구 치현 일원	고등학생	26명	• 경상남도교육청과 일본 아마 구치현교육청 고등학생의 스포 츠 교류(야구)를 통한 우호 증진	학교혁신과	268-1513
13	9.9.(수) 10:00 ~13:00	아이의 마음을 여는 감동부모교육	함안유치원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	50명	• 놀이를 통한 회복·성장하는 관계 만들기	경남 유아교육원	237-8082
14	9.11.(금) 09:50	찾아가는 체험활동	고성 거류 초등학교 체육관	고성지역 병설유치 원아	60명	• 소규모 유치원 유아의 체험 기회 확대위해단위 유치원에 찾아가서 6개 영역의 체험 부스 운영	경남 유아체험교육원	760-7122
15	9.11.(금) 10:30~12:30	(특강)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교육의 변화	마산도서관 시청각실	성인	50명	•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교육변화에 맞는 맞춤형 진학지도	마산도서관 평생학습담당	240-4541
16	9.11.(금) 14:00-16:00	서혜정과 함께하는 '성우 낭독회'	김해도서관	김해시민	100명	• 성우낭독회-낭독과 스피치 힐링	김해도서관	320-5563
17	9.12.(토), 9.19.(토)	길 위의 인문학 강연 및 탐방	마산도서관 사천, 하동 일대	(중학생 이상) 지역주민	35명	• 김동리 생애 및 소설에 대해 알아보기 • 김동리 소설의 배경이 된 사천, 하동 일대 탐방	마산도서관 종합자료실	240-4552
18	9.19.(토)	이남석 초청특강	별관 1 시청각실	중, 고, 일반	150명	• 대중가요로 알아보는 사랑의 심리학	창원도서관	278-2851
19	9.19.(토) 10:00	토요가족체험운영	경상남도 유아체험 교육원	경상남도내 만3~5세 유아(보호자 1명 동반)	300명	•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체 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내의 바람공체험, 물체험, 동화방, 아트룸, 건축블록체 험 등 5개 체험실 운영	경남 유아체험교육원	760-7124
20	9.19.(토)	가족나들이 생태체험활동	본원 실외 체험장	경남 도내 만 4, 5세 유아 가족	159명 (50가족)	•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체험활동 (마중물체험, 흙산 놀이, 자연 물 조형활동, 풀꽃길 체험)	김해 유아체험교육원	343-8681
21	9.19.(토) 14:00-17:00	9월 '저자와 함께 하는 독서아카데미'	김해도서관	김해시민	100명	• 이철환 작가의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강연	김해도서관	320-5563

# 배움과 성장이 있는 수업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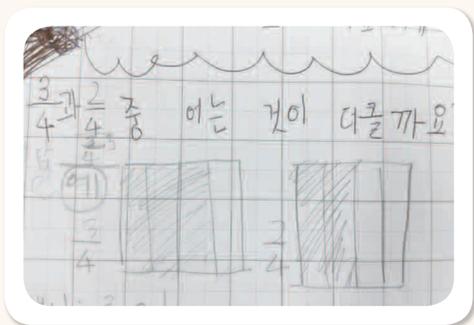
## 1. 가르쳤는데 배우지 못했다?

행복학교와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수업 방식에 대해 ‘가르쳤는데 배우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때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교과내용을 교사가 잘 전달하고 학생은 그대로 받아서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과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의 ‘배움’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배움은 학생이 교과 내용이 자신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고 지식을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재창조하는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 협력, 의사소통능력 등의 미래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배움중심수업은 학습자의 자발성과 자기 주도성을 기초로 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되 교사와 학생이 끊임없이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지식을 창조,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존재하는 수업이다. 교사는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수업을 계획대로 진행되는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완성해가듯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는 창조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배움의 공동체의 사토 마나부 교수와 한국수업기술연구회 한형식 선생이 제안하는 학생의 배움이 중심에 선 수업에는 공통적으로 ‘사고하기’와 ‘공유하기’ 개념이 포함된다. ‘사고하기’ 속에는 학생의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준 있는 문제(자료) 제시, 효과적 발문, 공책 쓰기 등의 세부 전략이 필요하며, ‘공유하기’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교류하며 토론하는 소통과 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 2. 자기 나름의 생각에서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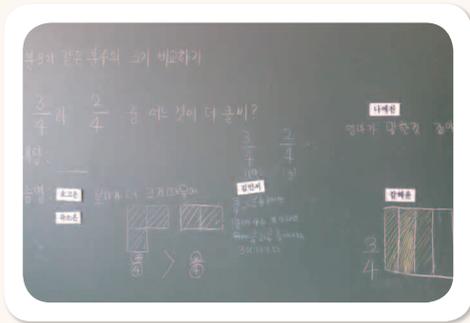


야구경기를 볼 때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더 열심히 경기를 관람하듯 학생들도 학습문제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게 되면 더욱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주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나름의 생각이 구체적인 형태로 정리되어 동료학생

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책에 기록하게 하면 좋다. 수학의 경우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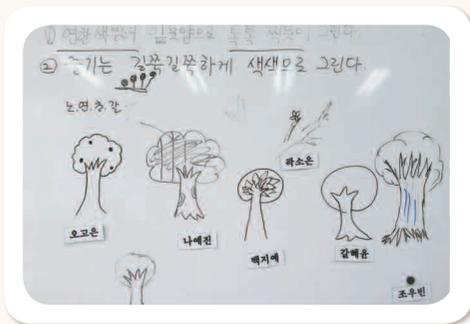
록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오답이 발견되기도 한다. 소극적이거나 부진한 학생들은 교사의 발문에는 입을 다물지만 공책에는 좋은 싫든 표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공책을 유심히 관찰하면 꼭 짚고 넘어 가야 할 오답, 정답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오답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수업에 활용하면 훨씬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배움이 만들어질 수 있다.

### 3. 나누고 대화하며 함께 성장하다



학생들 각자의 생각이 확립되었으면 이를 동료들과 나누게 한다. 칠판나누기를 통해 다양한 생각들이 펼쳐지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적극적인 수업대화가 오갈 수 있다. 학생 각자의 생각은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는 거친 생각이지만 이런 각자의 생각들이 모였을 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고 다듬어져 진리에 가까운 완성된 생각

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은 교사가 제시해주는 정답과는 차원이 다른 학생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지식을 발견해나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설명해주고 싶은 교사의 욕구를 잠시 누르고 더디더라도 학생들이 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해 점차 향상된 생각으로 발전되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중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미술시간에 나무를 그리기 전에 학생들에게 ‘나무를 어떻게 그릴까?’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펼쳐보게 하였다. 뿌리를 그린 아이, 잎과 가지만 그린 아이, 줄기를 섬세하게 표현한 아이, 꽃과 열매를 그린 아이... 등, 학생들은 서로 비슷할 줄 알았던 나무의 그림들이 무척 다양한 것에 대해 놀라고 재미있어했다. 교과서나 선생님이 제시한 모범적 참고작품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그려진 어설픈 나무들이 오히려 학생들의 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을 통해 뿌리를 그리는 방법, 잎을 그리는 방법, 줄기를 그리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정리를 해 나갔다. 이 과정을 통해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는 새로운 시도를 덧붙여 향상된 그림을 그리게 되고, 평소 그림에 자신이 없던 아이는 보다 편안하게 친구들의 그림을 흉내내며 조금씩 나무를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통한 21세기형 인재 양성

글 남해 지족초등학교 교장 김정자

## 우리에게 SW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지족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꿈을 키워가는 창의적인 어린이’이다. 본교 교사 모두는 이 교육 목표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인 어린이로 커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다. 오랜 고민 끝에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었다.

## SW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녹인다.

>> 학년별 발달 과정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저학년은 손으로 조작하고 신체를 움직이는 ‘언플러그드 활동’을 주로 실시하고, 중학년은 알고리즘적 사고 중심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학년은 ‘피지컬 컴퓨팅’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먼저 창의적체험활동에 학교 특색 활동으로 SW교육을 선정하여 전 학년 모두 17차시 이상의 SW교육을 실시하고, 3~6학년은 수학과 과학 등 관련 교과를 재구성하여 연간 10차시 이상의 SW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5~6학년군에는 실과 교과를 재구성하여 연간 15차시 이상의 SW교육을 실시한다.

>>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에서는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SW 기초반과 SW 심화반(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을 개설하여 스크래치라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따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SW 심화반 학생들은 SW 자율 동아리를 구성하여 함께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토론의 과정을 통해 SW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방학 중 교육과정에서는 SW캠프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SW학습에 몰입하여 SW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보다 끌어올리고 있다.

>> 인근 3개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보물섬 공동 영재학급의 교육과정에는 SW 과목을 신설하여 SW학습을 통해 창의성과 사고력을 신장시켜 학생들의 영재성 개발을 극대화하고 있다.

>> 학교 행사로는 지족 SW페스티벌과 로봇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평소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SW활동들을 하고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 SW수업시간만큼은 학생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각 교실에는 교과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이 꼭 한 두 명씩은 있기 마련이다. 이들은 교과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학급 내에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수업시간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SW교육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국어·영어·수학 수업 시간 딱 짓을 하기 일췌였던 이 학생들이 SW교육 시간에는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늘 다른 친구들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던 이들이 수업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자기 표현에 소극적이었던 학생들이 스크래치 화면을 통해, 레고 마인드스톰의 움직임을 통해 자기의 생각을 자신있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변화는 비록 작은 것이었으나 우리는 그곳에서 이 학생들의 가능성과 보다 밝은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었다.

### SW교육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처음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복잡한 명령블록 쌓기에 난감해 하고 어려워하던 학생들도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하는 즐거움의 소리가 교실에 가득했다. 게임을 할 줄만 알던 아이들이 게임을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즐거움도 느끼고 있다. 비록 아직은 만들어낸 게임과 동작이 귀여운 수준이지만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바를 프로그래밍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시키지 않아도 '다른 정답도 있지 않을까?' 하며 끊임없이 도전과제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간 선생님들의 노력을 보상해주는 것만 같았다.

### SW교육의 성과 뒤에는 교사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SW교육을 처음 시작하며 교사들의 열의는 뜨거웠으나 정작 우리 학교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했거나 많이 다뤄본 교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본교 교사 모두는 의기투합하여 소프트웨어 공부를 함께 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원격 연수는 물론이고, SW교육 우수 교사를 학교에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또한 소프트웨어 교구 판매처 본사를 직접 찾아가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 교사는 SW교육과 관련된 배움이 있는 곳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라도 어디든 찾아가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SW교육이 도입 초기라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에 교사들은 우리 학교만의 수업 자료와 수업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 SW교육을 통해 멋진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좋다.

아이들 모두가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SW학습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컴퓨팅 사고력이 성장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보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어쩌면 지족초등학교 학생 중 몇 명은 세상이 놀랄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지도 모르며, 제 2의 스티브잡스가 나올지도 모른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한 뼘 더 성장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것이다.



# 행복한 학습공동체

글 창원 평산초등학교 수석교사 남은희

## 1.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

학교라는 하나의 큰 울타리로 싸여 있지만 그 속에는 교실이라는 작은 섬들이 존재한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각자가 맡은 학반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어쩌면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제한점 때문인지 교사들 각자는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업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또한 자신의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기 꺼려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수업의 단점을 비판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에서 교직 사회에 자극과 활력을 불어 넣어 학교 조직을 학습 조직으로 전환하고 교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에 수업개선 관련 동아리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에 지난 4년간 연속하여 동아리를 조직하여 회원들 간의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며 전문성을 개발한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특성화 분야와 차별화된 운영방안

### 가. 특성화 분야

#### 1) 학생에게 맞는 주제선정

4년간 한 학교에서 매년 똑같은 주제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주제를 달리했다. 좀 더 새롭게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점이다. 특히 동아리 활동에서의 주제 선정은 동아리 회원 교사가 어느 학년에 많이 소속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년의 특성을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학년성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2011년은 ‘자유탐구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의 주제 아래 탐구학습(3학년), 2012년은 ‘생각을 여는 토의·토론 학습을 통한 창의·인성력 함양’의 주제 아래 토의·토론 학습(3학년), 2013년은 ‘생활주변에서의 관찰을 통한 수학적 힘 기르기’의 주제 아래 관찰을 통한

발견학습(4학년), 2014년은 ‘박물관체험을 통한 역사 수업’의 주제 아래 우리 역사 쉽게 알아보기 프로젝트 학습법(5학년)등 다양한 교과, 다양한 학습법을 연구하였다.

2) 동아리회원의 자발적 참여

동아리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요건은 바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일 것이다. 3월, 자연스럽게 동아리 활동을 계획할 때 회원 스스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하기도 했다. 2011년 첫해에는 11명, 다음해에는 회원이 적을까 봐 다소 걱정스럽기도 하였으나 9명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였고, 2013년에는 8명, 2014년에는 12명이 희망했다. 꾸준한 인원의 자발적 참여는 연구회의 성과를 배가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

3) 동아리회원의 업무 최소화

동아리 회원 선생님들은 모두 담임을 맡고 있는 상태이기에, 업무를 최소화하고자 회장인 수석교사가 계획서 작성, 기획, 수업컨설팅, 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선생님들은 수업에 관한, 학생에게 필요한 활동만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나. 운영방안

1) 교육과정의 재구성

학년, 교과, 주제에 따라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지도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은 필수이다. 때문에 먼저 동아리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예로 ‘박물관을 통한 역사 공부’라는 주제로 실천한 내용 가운데 먼저 교사의 사회 교과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창의적인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하여 성취기준 중심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재구성한 내용을 소개해 본다.

연	제재	성취기준	교과서 살펴보기				
			학습요소	쪽수	차시	재구성	박물관
1. 하나된 겨레	3. 삼국의 성립과 발전	삼국의 발전 과정 및 상호 경쟁을 그림, 지도, 연표로 표현한다. 유물과 유적, 역사 인물 이야기를 통하여 삼국의 생활 모습을 이해한다.	삼국과 가야의 건국 이야기 살펴보기	26-28	2	교과통합(미술), 2시간 블럭타임	국립 중앙 박물관/ 김해박물관
			삼국과 가야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29-31			
			삼국에 전래된 불교에 대해 이해하기	32-33	1	시수 통합	공주/부여/경주 박물관
			삼국과 가야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34-36			
			삼국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살펴보기	37-39	1		

2) 수업임상을 통한 수업컨설팅

수업개선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장학이다. 자기장학의 방법적인 면을 보면 하나는 공개수업을 통한 자기장학, 하나는 수업 녹화를 통한 자기 장학이다. 공개수업을 통한 자기장학도 좋은 방법이지만 자신의 수업을 본인이 보지 않은 채 다음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가장 훌륭한 자기 장학은 본인의 수업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한다. 이에 항상 본인의 수업 녹화를 강조하여 자기 분석을 하도록 했다.

3. 그 동안의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학교 안에서의 섬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음을 느낀다. 학교는 이제 교사도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학교의 문화를 학습의 문화로 끌어내는데 한 몫을 한 것이 동아리 활동의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함께 수업을 잘 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 자료 제작, 수업으로 교사 서로 간에 배움이 발현될 수 있었다.



## 꿈을 읽는 교사는 늙지 않는다!

진영고등학교 이유진선생님을 만나다.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현재 김해 진영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국어교사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십 년 이상 학생들에게 ‘학급별 책 돌려 읽기’라는 독서교육을 해오다가 몇 년 전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교육 논술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제가 먼저 성장하고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통해 독서와 논술 및 NIE는 상호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어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Q. 선생님은 제1회 경남도민일보 NIE 대회에서 1등에 해당하는 으뜸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어떻게 수상하시게 되었나요?**

A. NIE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규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동아리 활동 시간 등을 통해서 신문을 자료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년 전, 본교 동아리 학생들이 처음으로 경남신문 NIE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처음 출전한 두 학생이 모두 고등부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본교 2학년 학생이 영광스럽게도 고등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비단 NIE 뿐만 아니라 제가 지도한 학

생들이 경남 및 전국단위 각종 교외대회에서 다수의 수상(약 7개 부문, 35명 정도)을 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읍·면지역 농어촌에 소재한 열악한 환경 탓에 본교 학생들 대부분은 학습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면서도 자존감이 낮았기에 수상은 학교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Q. 어떻게 NIE 수업을 시작하시게 되었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국어는 도구교과로서 다양한 수업방법 모색이 가장 요구되는 과목입니다. 항상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새내기 교사 시절부터 학생 중심의 활기찬 수업을 꿈꾸어 왔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새로운 수업 방법을 찾던 중 자연스럽게 신문을 수업 자료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교과서가 잘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신문은 ‘살아있는 교과서’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정보가 가득할 뿐 아니라 쟁점문제에 대한 풍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사성만으로도 교과서와 차별됩니다. 무엇보다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잘 활용한다면 신문은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신문에서는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강렬하게 유발하는 자료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과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또한 열정 있는 교사의 몫으로 남습니다.

**Q. 그동안 NIE 실제 수업에서 어려운 점과 효과적인 수업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A. 융합적인 측면에서 NIE를 실천해야 하는데 신문만으로 수업을 하기 보다는 독서나 토론, 논술 수업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즉, 신문이 가진 시사성, 현장성, 다양성 등의 고유한 장점은 살려내면서 현재 학생들의 관심과 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자료의 재구성과 다른 매체나 교과와 연계한 새로운 수업 방법 모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모든 교사의 바람이겠지만 제가 들어가는 수업만큼은 학생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자신감 있게 하고 싶습니다. 급변하는 지식 사회에 더 빠르게 변화하는 학생들과 수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실을 붕괴의 공간이 아니라 교권 확립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목에 대한 지식습득과 가르치는 기술 연마를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차별화된 능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어교사로 남아 있는 그날까지 독서와 논술, 그리고 NIE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 수석교사 양경윤의 서재는 나눔과 함께이다.

혼자 책읽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을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합니다

초등학교 수석교사입니다. 「한 줄의 기적, 감사일기」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책읽기와 감사일기로  
행운 가득한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독서토론 및 책읽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1. 선생님의 어린 시절과 독서와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해주세요

어린 시절 책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책읽기를 좋아하던 언니들 사이에서  
자라서 책을 많이 접해보기는 했지만 탐독하거나 폭 빠져서 지내본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청소년기입니다. 그 시절 책들  
을 더 가까이 하고 깊이 있게 읽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폭넓은 독서  
는 부모가 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교육에 관한 궁금증을 책으로 해결하  
다보니 관련서적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인문학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 2. 선생님의 서재를 소개해 주세요.

컴퓨터 서적부터 영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책을 사서 읽는 편입니다. 내 책이어  
야 줄도 굵고 띠지도 붙여서 초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서재는 삶의 지혜  
와 긍정적인 삶이 되도록 해주는 화수분입니다.

### 3.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양서, 혹은 좋은 독서법을 소개해 주신다면?

저에게 양서란, 한 개인의 생각과 관점을 넓혀주고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문학이든 자기계발서이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행동의 변화가 함께할 때 좋은 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4. 학생들 혹은 동료 교사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저는 선생님들께 새로운 교육 사조의 책, 문학, 예술,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분

야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깊이 있게 읽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다보면 서로 다른 각기의 분야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교육현장에 접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5. 선생님이 읽으신 책과 관련해서 혹시 수업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요?

그림책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글밥은 작지만 그림과 함께 있어 생각거리가 풍부하여 짧은 단위시간에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한 권의 책이 수업시간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집중요인을 만들어줍니다. 짝과 함께 그림책 읽기를 적용함으로써 서로간의 사고의 촉발 및 의사소통능력 함양에도 도움이 됩니다.

## 책 읽는 교사의 서재 BOOK in



### 다, 그림이다

이주은 | 손철주 지음 | 이봄 | 2011.1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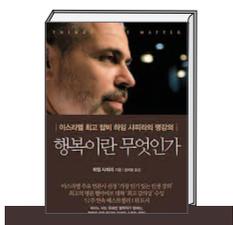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지요. 그림은 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두 분의 저자가 마치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듯 서술되어 있습니다. 머나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지구 반대편의 공간속으로 들어가 만난 경이로운 작품들이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 줍니다.



### 숲에게 길을 묻다

저자 김용규 | 비아북 | 2009.03.31.

나무와 풀이 어떻게 생겨나고 꽃은 어떻게 피어나는 지, 생명의 탄생과 결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오랫동안 삶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숲의 생존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한경쟁과는 달리 '상생'과 '성찰'로 대변되는 숲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 줍니다.



###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임 샤피라 (지은이) | 정지현 (옮긴이) | 21세기북스 | 2013-02-20 | 원제 Things That Matter (2012년)

'행복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며, 총체적인 목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행복에 대한 다른 정의를 품고 살아갑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중대하고도 진지한 삶의 여정을 진지함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철학자들부터 동화 속 곰돌이 푸우의 철학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이끌어 가는지 예를 들어주는 책입니다.

# 깡촌 학교의 독서교육기



글 합천 청덕초등학교 교사 김명연

“이런 건 뭐할라고 해요?” 면사무소에 책나들이 도서 설치를 막 마친 나에게 직원 한 분이 슬그머니 물어오셨다. “네... 편하게 책 보시라고요.” 웃으며 대답하면서도 생각이 복잡해진다. 그 혼한 마을도서관 하나 없다. 전교생은 탈탈 털어 열두 명. 병풍처럼 둘러싼 푸르디푸른 산무리와 양파밭, 마늘밭 사이를 비집고 들어앉은 아주 조그만 학교, 나는 청덕초등학교에서 근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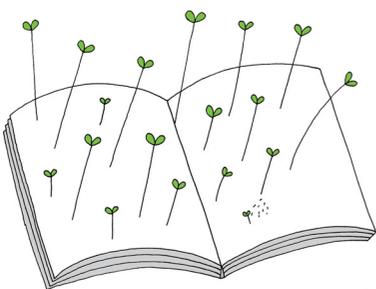
처음 도서 업무를 맡았을 때 작은 학교치고는 그럴듯한 도서관 시설과 육천 여 권의 도서보유량에 놀랐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독서량과 독서의욕, 사고력은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이곳에서 ‘행복한 책읽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고스란히 내 뒤통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역시 독서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책을 읽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보다 쉽고 즐겁게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학교가 먼저 시작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독서교육도 이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독서를 통한 소통과 나눔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박재식 교장선생님의 말씀도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첫 번째 시작으로 우리는 ‘SNS 학교밴드’를 통한 독서나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른바 ‘SNS를 통한 청덕골 한 책 읽기 운동’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매월 한 책 도서를 선정하고 함께 읽은 후, 휴대폰을 이용해 SNS 학교밴드에 감상을 올리는 활동이다. 거창한 독후감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소소한 감상 한 두 줄이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책을 읽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접근성이 좋은 반면, 부담은 적다는 이점 덕에 이 SNS 독서네트워크는 요즘 청덕골 교육공동체의 훌륭한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시작은 ‘책나들이 도서’를 통한 독서나눔 활동이다. 문화적 소외지역인 청덕면 주민들을 위해 학교 도서관의 장서를 공공기관에 대여하고 자유롭게 대출 및 반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반경 깊숙이 읽을거리를 투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요즘 한창 양파 수확철이라 바쁘다는 농협, 면사무소 앞 아저씨, 아주머니들. 그래도 한 권, 두 권씩 늘어가는 대출목록에서 새록새록 희망을 본다.

독서는 나눔이다. 책과의 나눔이요, 사람과의 나눔이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독서공동체의 존재는 소중하다. 또한 그러기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시작하는 이 ‘삼동작전’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독서교육을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는 밑거름으로 끝맺게 될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오늘 책을 배달하고, 관리하는 수고로움은 행복한 사무일지니...





**제목 >> 아~ 신기해!**

시골학교에서 이동과학실험교실이 열렸다. 소리의 공명현상에 대한 실험에 즐거워하고 신기한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담아보았다.

전광희 / 현) 무동초등학교 교장

- 
- 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역임
  - 경상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 매일사진동우회 회원, 영상동인회 회원, 경남교원사진연구회 지도위원
  - 개인사진전(태화강변 1987) 1회
  - 부산미전 입선, 코닥어린이사진공모전 금상 외 다수

